

아프리카 오지 찾아다니는 마다가스카르의 '유명한 닥터'

글 김혜진 작가 / 사진제공 이재훈



이재훈 의사는 2005년부터 마다가스카르에 머물면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오지로 이동진료를 다니고 있다. 사진은 이재훈 의사가 오지마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 **이재훈**: 의사. 1967년 전주에서 3남 중 둘째로 출생. 전주 동암고 · 고려대 의대 · 연세대 의학대학원 졸업(의학석사).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외과 전공의). 아프리카 오지선교회(AIM)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의료봉사단체인 피아이나나 베데베 CEO 역임. 이태석 봉사상, 에버슨 봉사상, 자랑스런 고대인상,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및 수훈. 부인(박재연)과의 사이에 2남1녀.

“거기 가면 빵을 받을 수 있어!”

모든 일은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동네 형을 따라나서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됐다. 네 살 꼬마에게 빵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달콤한 제안이었다. 아이의 발이 멈춘 곳은 한 교회였고, 빵을 받으러 간 교회는 이후 빵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가는 곳이 됐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열네 살 소년이 됐고, 그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가 되어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1986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한 뒤에는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외과를 선택해 2000년 전공의를 취득했다.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재훈(51) 의사다. 그즈음 한 선배의 소개로 르완다에 의료봉사를 갔다. 아프리카의 의료 실정도 파악할 겸 가볍게 떠난 르완다에서의 한 달은 충격이었다.

“르메르 루코마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는데, 그곳의 환자는 우리나라와 전혀 달랐어요. 병이나 상처가 오래 방치돼 거의 죽기 전에 오는 거예요. 저는 응급실과 외과를 돌면서 여러 과를 섭렵했다고 생각했는데, 외과와 산부인과 등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왔습니다. 경험한 적 없는 환자들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마다카스카르가 필요로 하는 의사

스스로를 우물 안 개구리라고 느낀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우물 밖으로 나가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돼야 했다. 그는 당시 모든 파트의 수술을 1천 회 이상 집도한 연세대 의대 이경식 교수를 찾아갔고, 그의 소개로 세브란스병원과 분당차병원 등에서 위장·간·대장항문·유방·갑상선·소아외과 등의 외과 세부과목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임상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환자를 치료할 정도로 훈련이 되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03년 전임의를 사임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어학 연수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봉사할 땅을 정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였다.

2005년 그는 가족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도착했다. 그들을 마중 나온 건 칠혹 같은 어둠이었다. 부인(박채연·52)은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저녁 6시쯤 됐어요.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암흑을 뚫고 집으로 갔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저녁 6시면 모든 불빛이 자취를 감추는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됐다. 첫해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지어인 말라가



이재훈 의사는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오지 이동진료를 통해 주민 5만여 명을 진료하고, 2천5백여 명을 수술했다(위).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대륙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이다(옆).

시어를 배우고, 현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제 NGO단체 및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마다가스카르 오지 의료봉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6년부터는 안타나나리보 근처의 이토시 병원에서 외과의로 근무하면서 한 달에 일주일은 무의촌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나갔다. 현장에서 목격한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거즈가 두 장밖에 없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술 도구와 약품 등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그가 도착하면 주민들은 ‘유명한 닥터’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그를 반긴다(왼쪽부터).



수건을 잘라 소독하고 그걸로 수술했어요. 상처를 봉합할 실도 없어서 재봉틀에 사용하는 실크 실을 잘라 소독해 사용해야 했어요. 수술 재료나 기구, 약품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죠.”

무료 이동진료는 2007년 이후 탄력을 받는다. 여러 국제 NGO 단체에서 약품과 수술도구, 환자 모니터링 장비, 항공이동 등을 지원해준 것이다. 오지까지의 이동진료가 가능해지고, 현지에서의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이동진료를 가는 오지마을은 마다가스카르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 접근성이 낮고, 긴급진료 수요가 많은 곳을 택했다. 안타나나리보에서 가깝게는 300km, 멀게는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2~3일 비포장도로를 열심히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들이다. 2009년 사륜구동 차량을 마련하기 전까진 1993년산 중고 SUV를 타고 오지를 찾아다녔는데, 길에서 차량이 고장 나가나 전복되는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다.

“의사를 처음 보는, 의사라는 단어가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무당이였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금기를 어겨서 저주에 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당을 통해 잘못을 구하는 방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병을 치료하는 저를 두고 ‘외국에서 온 무당’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는 “내가 무당이 아닌 의사라는 걸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하지만 그들의 병을 치료할 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오지 이동진료를 나가면 위급한 환자들로 인해 놀랍고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도 몇 차례 지나가곤 했다.

현지인들의 마음 모은 ‘풍성한 삶’

그는 2006년부터 마다가스카르의 오지마을로 100회가 넘는 이동진료를 나가 주민 5만여 명을 진료하고, 2천5백여 명을 수술했다.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19만km로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한다.

이제 오지의 주민들은 자기네 마을까지 험난한 길을 뚫고 꾸준히 찾아오는 이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면 그들은 ‘유명한 닥터’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그를 반긴다.

2011년 비자 문제로 활동이 어렵게 되자 마다가스카르의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정부관료 등 현지인들이 나서 그를 적극 도왔다. 그들은 지난 5년간 그가 마다가스카르의 보건의료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현지의 도움으로 2012년 비영리 의료 봉사단체인 피아이나나 베대베(Fiainana Be Dia Be, FBDB)가 설립됐다. 피아이나나 베대베는 현지어로 ‘풍성한 삶’이라는 뜻이다. 경제만이 아닌 육체와 정신 등 모든 면에서의 풍성한 삶을 말한다.

피아이나나 베대베가 설립된 뒤 이동진료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NGO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지 의료진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일반의사 2명, 간호사 6명, 마취과 간호사 1명, 운전기사 2명 등 20명 정도가 팀을 이뤄 함께 움직였다. 그로써 오지로 떠날 때마다 해야 하는 사전답사와 약품, 수술 도구 및 장비 등의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

2008년부터는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를 알고 있는 국내의 의료진들은 그가 한국에

오면 늘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고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2008년 국내 의료진이 보낸 4천 권의 의학 서적이 안타나리보 국립의과대학과 마장가 국립의과대학에 기증됐다. 대한세포병리학회 소속 교수들은 2016년부터 매년 1회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현지 의료진을 위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브란스병원에 마다가스카르 현지 의료인의 연수를 연계해 지금까지 6명이 3개월씩 단기연수를 다녀갔다.

“브루노는 외과의사로 마다가스카르 북부에 있는 수왈랄라 독립병원 원장이예요. 그런데 그는 비교적 간단한 탈장 수술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양한 외과 수술을 하는 걸 보고 한국 의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2년 동안 함께 오지로 의료봉사를 다녔죠. 지금은 웬만한 치료는 다 할 수 있고, 2017년에는 본인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어요.”

현지 의사가 주민 치료하는 시스템

그는 브루노를 비롯한 이동진료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현지 의료인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 언젠가 그가 마다가스카르를 떠날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현지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진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그 준비단계로 우선 13년간 오지 진료를 다니면서 작성한 환자기록 2만5천여 건을 분석해 다빈도 질환을 추렸다. 그렇게 추린 내과 20개, 외과 20개의 질환을 연구하여 “다빈도 질환의 치료 매뉴얼을 만들어 현지 의료인들을 훈련하면 마다가스카르 오지 환자의 94퍼센트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는 현지 의료인을 훈련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현재 국가가 보유한 재정 능력으로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동진료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곤 선구적으로 이동진료를 이끌고 있는 그를 공중보건국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의료선교사를 꿈꾼 열네 살 소년은 그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다. 그가 가는 길에 동참한 동료 의사들과 국제 NGO 관계자들은 “13년간 오지 이동진료를 꾸준히 해온 열정도 훌륭하지만, 그 경험을 체계화해 마다가스카르의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정착시



그의 아프리카 의료봉사는 부인과 2남1녀의 자녀 등 가족의 이해가 있기에 가능했다(위). 부인은 그와 함께 마다가스카르에 머물면서 간호와 조제, 경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아래) ©민영주.

키려는 그를 현지인과 우리 모두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0회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가 떠올랐다면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전했다.

“198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 당시 바다 물살이 너무 세서 손을 못 대고 있을 때, 정주영 설립자님의 아이디어로 폐유조선을 가라앉히는 물막이 공사를 해서 방조제를 무사히 건설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립자님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려면, 저는 그 폐유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현지의 전문의를 배치하고,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 예정이다. 그때까지 그는 지금껏 그래왔듯 오지의 ‘굿 닥터’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